

##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통한 이해와 연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을 중심으로

최은영\*

**요약**\_한인 디아스포라 정책 및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민족 단일문화 신화와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세계 각지에 흩어지고 재이주하며, 귀환하기도 하는 한인들의 이주와 이들의 다층적인 삶을 한국인 연구자가 본인의 위치성을 인지하면서도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사례로 이 연구가 지니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프로그램이 지니는 탈 한국중심의 연구 방법으로서의 가치이며, 둘째는 한인 이주자간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의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협력적 구술생애사”의 실천적 연구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젠더와 이주, 가족에 초점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활용함으로써, 구술 참가자가 젠더와 세대, 출신 국가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자신의 위치성을 확인하며 성찰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여 연대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주요어**\_코리안 디아스포라, 젠더, 가족, 협력적 구술사, 이주, 초국가적 한인

### 1. 서론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단순한 고향/타향의 이분법 틀 내에서 민족동질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중심의 ‘한민족 단일문화’ 신화를 강조하던 ‘구 디아스포라’에서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 038716).

\*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christinaeunyoungchoi@gmail.com

초국적 네트워크와 문화정체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신 디아스포라’ 연구로 이행하고 있다(김귀옥 2013; 문·Park 2016; 이상록 2015; 정진아 2014). 최근의 연구들은 해외의 정주 집단이나 비자발적 이산 뿐 아니라 자발적 이민과 초국가적 노동이민 집단까지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추세이다(신기영 2016: 27). 그러나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개념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코리안 내셔널리즘에 묶여 있는 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포 정책 또한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외 동포 역량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정진아 2014: 38; 황신용 2005: 70).

그렇다면 세계 각지에 흩어지고 또 재이주하며, 한국으로 귀환하기도 하는 한인들의 다층적인 삶의 모습을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돕는 연구방법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자랐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는 현무암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중심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과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시각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그런 측면에서 그는 탈 한국(고국) 중심적인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한국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인지하면서도, 탈 한국 중심으로 한인의 이주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연구과정에서 불평등한 동포들 간의 관계를 연구자 뿐 아니라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인지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며, 젠더와 세대, 출신국의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 짓고 연대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수행한 ‘경계를 넘는 삶 이야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협력적 구술생애사 방법이 지니는 의미를 젠더와 가족에 초점 맞추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탈 한국중심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 방법으로서의 의미이고, 둘째는 한인 이주자들 간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

1 2019년 8월 26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수행한 “경계를 넘는 삶 이야기” 프로그램의 생애사 구술 참가자로 참석하여 구술.

장으로서의 가치이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 배경 한인들이 모여 돌아가며 본인의 생애사(life history)를 구술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6~8명이 함께 생활하며 진행된다. 이는 탈북자, 재외 동포, 귀환이주자 및 이주 경험을 한 한국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한인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박준규(Park 2016)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의식하며 각자의 삶이야기를 구술하는 방식에 대해 협력적 구술생애사(Collaborative oral lifehistories)라고 명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주변화 시키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원칙으로 한다(Park 2016: 145). 참가자들은 먼저 30분 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그 후 추가적인 30분 동안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보충한다. 질문은 평가나 비판이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한 질문만 할 수 있다고 시작 전 안내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질문이 제기되고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가를 연구자는 중요하게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말하기”와 “적극적인 듣기”를 실천한다. 그렇기에 이향규(2019a: 24)는 삶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태도”라고 이야기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한인들이 모여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열연했던 무대가 세계의 중심이다. 삶을 나누는 화자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바뀌고 이전의 중심이었던 무대가 주변으로 밀려 난다. 삶을 살아 낸 이들이 위치해 있던 장소와 시대,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렇기에 화자의 정치, 경제, 젠더,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한자리에서 펼쳐져 서로 경합과 충돌을 일으킨다. 삶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구술자가 위치한 곳은 마냥 중심일 수도 없고, 주변일 수도 없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이의 삶의 경험을 들으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서로 인지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서로의 삶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술사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조일동 2015; 문현아·Park 2016)는 녹취된 구술사 텍스트를 출신국가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다보니, 개별 심층인터뷰나 개인 구술을 통한 기존의 재외동포 연구 또는 귀환이주자 연구와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참가자들의 관계성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이주 한인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참여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는 협력적 구술이라는 공식적인 삶이야기 나눔 시간 외에 식사시간, 산책 시간, 뒷풀이 시간 등이 있다. 또 이들은 숙소에서도 잠들기 전에 모여 교제를 한다. 이 연구는 그 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지적 현장을 만들어 낸 것(the production of ethnography spaces)이고,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교류, 이야기 등을 참여자이자 연구자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한인들이 각자를 삶의 주인공으로 하여 자신이 경험한 이주와 초국가적 경험을 이야기 동안, 이들이 어떻게 젠더와 세대, 출신 국가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위치성을 확인하며 성찰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가?

이 연구는 삶이야기 프로그램 중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젠더와 가족에 대한 구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 1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참여 실천 연구이기에,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민족지적(ethnography) 현장 연구, 참여 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 협력적 구술 생애사(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ies)를 포함하는 복수적 방법(multi-methods)을 사용하였다. 1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은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와 가족의 관계가 구술가운데 잘 드러난 김미숙, 이한수, 이숙자, 김금영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참가자 명단

참가자	성별	출생지		이주경험
김미숙	여	중국	1970년대 초반	재중동포, 1995년 결혼이주로 한국 입국 후 정착. 다문화가정
이한수	남	일본	1960년대 후반	재일교포 2세, 한국 국적, 유학생으로 한국 입국. 취업과 결혼 후 한국 거주
이숙자	여	사할린	1940년대 중반	터키와 한국, 사할린을 오가며 장사. 북한 국적이었다가 러시아에서 결혼하며 러시아 국적 취득, 사할린 영주 귀국 대상으로 2007년 한국 귀국
김금영	여	북한	1950년대 초반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에 정착. 다시 캐나다에 난민 신청하였으나 거부, 캐나다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다 한국에 재정착
김상호	남	한국	1960년대 후반	연해주에 13년 거주. 한국에서 고령인 지원 활동
이상면	남	한국	1940년대 후반	중국에 공장을 세워 사업, IMF 직전 사업 실패. 60세에 중국 유학 후 중국 대학에서 강의. 현재 한국 거주

## 2. 여성주의 접근에서 본 초국가적 한인이주와 협력적 구술생애사

김성례(2002)는 구술사를 구술형식에 따라 집단적 구술과 자전적 구술로 나누고, 또 자전적 구술은 과거 경험을 연대기 적으로 서술하는 생애사(life history)와 구술자의 주관적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치중하는 생애이야기(life story)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라보면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프로그램은 6-8명이 모여 함께 구술을 하기에 집단적 구술처럼 보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구술형식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복합적인 서사로 구성되는 집단적 서사와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등글게 앉은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각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풀어내어 서술하기에 구술생애사라 할 수 있다. 구술생애사를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의식하며 이루어지기에 박준규(Park 2016)는 이를 협력적 구술생애사라 칭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구술생애사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이주, 가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이해와 연대를 꾀하는 실천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을까? 여성주의 학자들은 기존의 남성들의 경험과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 구술생애사를 주목하였다(윤택림 2010; 이나영 2012; 이성숙 2006; 이희영 2007). 여성주의 학자들은 남성중심의 관점에서 선택되고, 조직되며 해석된 문헌에서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를 채록하여, 여성의 산 경험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해 내고자한다(이희영 2007: 99). 이들은 여성들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가를 살폈다. 또한 여성의 구술 내용 뿐 아니라 침묵과 표정에 담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까지 읽어내려고 한다.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한인의 이주 및 삶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로는 탈북여성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안태운 2015; 이희영 2010), 실향민 한인 여성에 대한 구술 생애사(윤택림 2013), 파독 간호사 연구(나혜심 2012; 양영자 2013; 이효선·김혜진 2014), 중국 조선족 여성 연구(박경용 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대상자를 출신국 또는 거주국 별로 세분화하여 다루었으며,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조우하는 다양한 한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 등을 살핀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여성의 이주와 삶에 집중하며 연대의 파트너로 다양한 이주배경 한인 여성을 포함시키지만, 이주과정 속에 차별을 겪고 경계넘기를 시도하는 남성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에서는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 등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연구자와 구술자 둘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화되며 공감되고 위로되기도 함을 살폈다. 또한 이러한 이주 가족의 고통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한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로 삶을 살아낸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남성의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초국가적 한인의 이주와 가족을 살피려 한다.

그렇다면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젠더와 세대의 경계를 가로질러 연대를 꾀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방법

적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협력적 구술생애사라는 연구방법 자체가 실천적 함의를 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기존의 여성주의 구술사 방법론의 실천성에 대한 논의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여성주의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oral history)가 지니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긴장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나영(2012)과 윤택림(2002)의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이나영(2012: 184)은 기존의 많은 구술사 연구들이 경험의 주체로서 구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명목 하에, 구술자가 구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면담자)의 역할을 숨기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술사 연구방법은 ‘말하는 자’에게 권한부여(empowerment)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이 연구방법을 통한 전 연구과정에도 연구자의 사회적 위치가 반영되고, 연구자의 적극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다(이나영 2012: 184-185). 또한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는 이는 연구자이기에, 글쓰기와 재현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권력 문제가 발생한다(윤택림 2002: 217). 그렇기에 윤택림은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여성학자들이 다른 여성들의 주체적 목소리 내기를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글쓰기 실험을 통하여 그들을 타자화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글쓰기 실험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에서는 연구자의 권력과 사회적 위치가 연구 과정과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구술자와 연구자가 일대일로 구술을 진행할 때보다 연구자의 권력과 시각이 구술자의 구술 내용에 덜 영향을 끼칠 장치들을 만들었다. 구술과정에서 연구자는 반 발짝 뒤로 물러나 있고 구술을 하는 참가자끼리 서로에 더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팅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이다. 어떠한 질문을 누구에게 던졌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에 견주어 진행하는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협력적 구술에 참가하는 한인들끼리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서로를 의식하고 구술하게 함으로써, 심층인터뷰나 개별적 생애 구술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권력관계나 연구자의 질문이 구술자의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구술자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확

인하고 만들어가는 위치성과 재귀성이 아니라 이야기 모임에 참가한 구술자들 사이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성찰적으로 재조정해 갈 여지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실천 프로그램이기에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존중받는다든가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듣고 말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썼다. 젠더 및 나이 차에 따라 누군가가 이야기 시간을 독점하고 누군가는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술 시간을 부여하고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하였다. 또한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구술자와 사회자 두 명이 둘러앉은 썬클 바깥에 자리했다. 구술이 끝난 후 30분 주어지는 질문 또한 썬클 안에 있는 구술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끔 배려하였고,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은 쉬는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렇다고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는 필자인 탈북 연구를 하는 지리학자 외에 북한교육을 전공한 교육학자, 고려인 청소년 연구 전문 교육학자, 사할린 연구를 하는 재일동포 인류학자, 일본 및 북한 전문가인 인류학자가 참여하였다. 모두가 우리말(Korean)<sup>2</sup>을 사용하지만 한국출신자, 재일동포, 북한 출신, 재중동포가 구술하는 우리말에는 차이가 있어 종종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구술자가 이야기 하는 지명이나 시대적 맥락이 구술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데, 다른 참가자들이 이해를 못하여 구술자가 난처해 할 때도 있었다. 이처럼 같은 코리언이지만 통역이나 보충 설명이 참가자들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할 때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연구자들이 썬클 안의 대화에 끼어들어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협력적 구술이라는 대화의 주체는 참가자들임을 인정하고 세우는 의도

2 이항규(2019b)는 런던 한겨레학교에서 부모가 북한 출신의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라는 용어에는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이라는 의미가 담겼기에 한국어 표준어가 아닌 다른 우리말을 배제한다고 이야기 한다. 한국에서의 표준어와 북한에서 쓰는 말은 모두 억양이 다르지만 '우리말'이다. 우리글은 한글로 불리지만, 우리말은 부를 특별한 용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저자도 '우리'의 말이라는 표현 외에 연변의 우리말과 재일동포가 쓰는 우리말, 사할린 한인이 쓰는 우리말을 통칭하여 부를 용어가 없어, 그냥 우리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말의 "우리"는 민족중심의 배타성을 지니는 한계가 있다.

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구술을 녹음하였고, 구술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녹음과 문자화된 텍스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영상녹화도 병행하였다. 녹취한 텍스트는 해당지역 연구자들이 나누어 검독하고 특정한 지리적, 문화적 텍스트 내에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는 각주로 설명을 붙여 공유하였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필자 본인의 글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연구과정에 함께 하였다. 구술참가자들이 생애 구술과 질의응답을 통해 타인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고, 공동연구자들이 구술자 섭외 및 구술자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이 연구는 이들과의 “협력적 지식생산(collaborative knowledge production)”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러나 이나영(2010)이 지적하였듯이 저자 또한 협력적으로 구술하는 ‘말하는 자’에게 권한부여(empowerment)를 시도하려 애썼지만, 연구자인 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특정 구술을 선택하고, 필자의 사회적 위치 및 학문적 시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여 이 글로 작성하였다.

### 3. 국제결혼과 가정불화: 재중동포 결혼이주자 김미숙 씨와 재일동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이한수 씨

#### 1) 코리안 디아스포라 내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첫째 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재중동포 김미숙 씨는 방을 같이 쓰게 된 필자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본인은 1995년에 결혼이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오기 전에, 짐을 싸서 집 한구석에 놔두고 왔다고 한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짐을 싣다가 다시 풀기를 한국으로 시집 온 후 지난 25년 여 동안, 수십 차례를 했다. 하지만 아들을 혼자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문을 박차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지는 못했다고 한다. 취업 교육도 받고 열심히 일도 했지만, 나고 자란 나라가 아니라

그런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뛰쳐나오고 싶은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자신을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느꼈더니, 우울증이 오고 몸도 아파 지난해에는 수술을 받았다.

김미숙 씨가 이 프로그램에 와 있는 동안 꺾꺾 눌러 놓았던 자신의 가정불화를 직면하여 다시 돌아보게 한 이는 첫 번째 이야기 손님, 재일동포 이한수 씨였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 1960년대 중반 일본으로 파견근무를 왔던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재일동포 2세였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한수 씨는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하면 매일 치고 받고 싸우던 부모님이 제일 먼저 기억난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이한수 씨가 고2가 되던 해에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다니던 일본 직장에서 쫓겨난 후, 변변한 일이 없었다. 일본사람들 뿐 아니라 재일동포에게도 한국에서 온 이주자는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인데다가,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늘 술을 마셨으니 어머니의 친척들에게조차 심한 괘시를 받았다. 한국에서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일본에서의 소외와 무시를 처와 자식에게 폭력으로 풀었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이한수 씨네 가족은 한국에 정착을 하려 한국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한수씨가 어렸던 1970년대, 한수 씨네 가족은 일본을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 전 상공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던 한수 씨의 어머니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대한민국에서 적응해 살 자신이 없다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울었다. 한수 씨네 가족은 공항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비행기 표를 끊어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 당시를 이한수 씨는 이렇게 기억했다.

이한수: 서로가 헐뜯고 욕하고 서로가 못났다고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한국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못 사는 나라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쪽에서 잘 사는 집안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저개발국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탈구된

위치를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식민지 중주국인 일본에서 보내면서, 한국에서의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은 탈각되고 식민지였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주변화 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인의 일본에서의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삶의 전략을 세워 가족을 돌보았더라면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다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거부했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다. 아버지의 일그러진 정체성은 이한수 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한수 씨는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저는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재일교포는 한국 되게 못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일본사람들 보다 강해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름(이한수)으로 살았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저는 초, 중, 고를 일본 공립학교에서 보냈고 제가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대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입니다. 그니까 가정에서 해 준 것은 이 이름 석자가 유일했던 거죠. ... 재일동포 민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체성 교육을 지원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본의 민족학교, 한국학교,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90%의 (재일동포)아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학교에 다닙니다. 한글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일본 공립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칼, 무기를 안 들고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민족학교를 다니며 민족어로 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조선학교 학생

들과 달리, 이한수 씨는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다. 한국인 아버지를 두어 한국 국적에 한글이름이었던 이한수 씨는 이름 때문에 일본 공립학교에서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고, 이는 차별적 경험의 일상화로 돌아왔다. 한국을 “되게 못사는 나라”로 부끄럽게 여겼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하지 못했으며, 한국을 폭력적인 아버지의 나라로 인식했던 이한수 씨에게 한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는 것은 고통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붙잡아 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혼란에 함몰되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한수 씨에게 상처로 남았다. 그럼에도 이한수 씨는 본인이 한국에서 재일동포로 “문전박대당하고 외부자로 취급 받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 또 문화적 차이로 자신이 아버지의 행동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문화충돌을 경험한 단적인 예로 아버지의 훈육을 들었다.

이한수: (아버지가) 비겁하게 물건을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 한국에 와서 알았죠. ‘매질을 한다.’ ‘매로 때린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기본인데, 일본에서는 비겁한 짓이거든요. 물건을 들고 때린다는 것은. 근데 한국은 반대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최악의 굴욕이잖아요? .. 그런데 저는 자식을 주먹으로도 못 때릴 정도로 비겁하면 때리질 말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한국 출생의 70대 후반 이상면 씨는 한국문화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면 손이 피부에 닿으니까 감정이 묻어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훈육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수 씨는 아버지 연배인 이상면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기에, 부모자식 간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의 골이 깊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한수 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에서의 삶을 힘들어 했던 아버지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이한수 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 후 1992년도에 한국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 어느 나라에서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 일본은 아

니었기에 한국 문을 두드려 봤다. 연세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졸업 후 한국에서 대학원에 입학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찾아간 한국 교수는 “다른 나라 동포는 다 받아주지만 재일동포는 안 된다”고 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992년만 해도 교수 뿐 아니라 학교가 사회과학 계열에 재일동포 유학생의 입학에 꺼렸다고 한다. 이한수 씨는 그 때의 기분을 “참 더럽다”고 표현했다. 일본에서 경험한 식민의 유산에 더해서 한국에 오니 냉전의 그림자까지 따라붙는 느낌이었을 것이고, 한국에서조차 재일동포가 소외되어 냉전의 정치에 이용당하는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재일동포가 편견 없이 설 곳은 한국보다는 영어권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캐나다 어학연수를 거쳐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이한수 씨는 공부를 마칠 때쯤, 미국취업 박람회에서 자신을 데려갈 회사가 미국 기업일지, 일본 기업일지, 한국 기업일지 궁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할 거라는 생각에 자신을 데리고 온 곳은 한국 기업이었다. 이한수 씨는 그 순간이 한국에서 불평등한 동포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냥 재일동포가 아니라 미국 교육을 받은 재일동포에게는 한국사회가 더 너그러운 듯 했다. 그러나 취직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어 온 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한수 씨는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받았다. 동포인데 한국어는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편견이 이한수 씨를 힘들게 했다.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더듬더듬 한국어를 하면 약국에서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힘들었다고 한다. 한국은 같지만 다른 동포에게 냉정했다.

이한수 씨는 현재,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다. 재일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1990년대 초와 지금의 한국은 그래도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이한수 씨는 한국 국적자이지만 내국인용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에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본 특별영주자격을 유지하는 국내 거주 재일동포의 자녀들은 2년 전까지 유아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문화 지원도 안 되고, 내국인으로서 출산수당, 보육수당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았기에 헌법 소원을 내서 승소해서 유아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에 함께 있었던 참가자들은 이한수 씨

와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이한수 씨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으며 편견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20대와 3대를 보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애증의 고국인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배제와 편견을 마주한다고 했다.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이라는 책을 엮은 신현준(2013: 39)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아스포라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면서 분리되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재일동포는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정책 모두에서 배제된다.

이한수 씨는 일본은 잘 살지 않느냐며 재중동포들이 재일동포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듣곤 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재중동포들이 부럽다고 했다. 재중 동포는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과 ‘조선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 사이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평가 받기 때문이다(강진웅 2012). 이한수 씨가 만난 연변대학교 출신의 재중동포가 “나는 중국인이야 하지만 한민족이야. 이러면 어때? 안돼?”라고 물었을 때, 왜 재일동포는 온전한 일본 국적의 일본 사람이자 민족으로는 한민족으로 한국과 연계하며 살 수 없을까 안타까웠다고 한다. 신기영(2016: 42)은 디아스포라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거주국에서의 소수민족성과 모국을 동시에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코리안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재일동포에게 모국과 민족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정주국인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존재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주의의 차별에 저항하도록 하였다(신기영 2016: 42). 이한수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강요되고 혼란을 야기한 이 이항대립적인 요구를 비판한 것이다. 이한수 씨는 자신이 경험한 가족불화가 단순한 부모의 성격차이 뿐 아니라 식민이라는 틀까지 연결되었음을 구술하였다. 함께 참여했던 이상면 씨는 이한수 씨의 상황을 “완전 공중에 떴네”라고 표현하였다. 이한수 씨는 구술 내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뜬 상태가 아니라, 이 모두에 속한 삶을 열망하며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 2) “피 흘리는 경계지대”에서 벌이는 주체로서의 저항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도

이한수 씨가 30분 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한수 씨에게 질문을 한 이는 재중동포 김미숙 씨였다.

김미숙: 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정불화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이한수: 어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크게 도움 받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 어머니하고도 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김미숙 씨의 이 질문은 이한수 씨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어 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김미숙 씨는 이한수 씨의 대답에 이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자살 충동까지 겪으며 힘들게 성장한 미숙 씨의 첫째 아들을 생각하니, 미숙 씨는 이제 그만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숙 씨네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남편이 3억의 돈을 잃고 집이 망하자 집 안에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큰소리가 오고가는 중에, 남편은 “여자 주제에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내리 놀렸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기에, 김미숙 씨는 이런 남자라도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싸우는 가정이라도 해체된 가정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병을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가족은 무조건 소중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재의 가족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가족 유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해체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정희진 2016: 32). 미숙 씨는 ‘누구를 위한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

램에 참여해서 다른 이의 삶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가 한수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같은 민족임에도 일본인보다 더 한국인을 차별하는” 재일동포 처가 식구들에게 차별과 모욕을 경험했던 것처럼, 재중동포인 김미숙 씨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못사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해서 힘들었다고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족 여성들의 여권은 높은 반면 중국에서도 조선족 사회는 가부장적이다. 중국내 “한족남자들은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내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다 해다 바치는데”, 조선족 남자들은 그러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매너가 좋아보였는데, 한국에 와보니 현실은 달랐다. 김미숙 씨는 중국동포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오던 초창기인 1995년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다.<sup>3</sup> 1992년 한중 수교가 되고 아직 결혼이주 여성도 많지 않을 때였다. 김미숙 씨에게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모험이었다.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좀 더 잘 사는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김미숙 씨에게 국제결혼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국제결혼은 여성이 이주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경제부국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김미숙 씨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추천한 관광형 맞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중국에서 두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족들에게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고려빵즈’<sup>4</sup>라며 놀림을 받았고,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와 보니,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시댁식구와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보니, 1995년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중국은 딱 한번 가봤다. 국

3 1990년 전체 혼인비율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1.2%(4,710건)이었으며, 그 중 외국인 아내의 비율은 0.2%(619건), 외국인 남편의 비율은 1.0%(4,091건)이었다(여성가족부 2006). 이는 국제결혼이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5년, 전체 혼인 비율 중 국제결혼 비율이 13.6%(42,356건)이며, 국제결혼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84.6% 것에 비하면 1990년대의 국제결혼은 시작단계로 다문화가정 인구가 2000년대에 비해 높지 않았다(허선미 2016: 1-2). 또한 1990년대는 결혼이주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4 ‘고려빵즈’는 고려봉자(高麗棒子), 고려몽둥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조선사람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제 이주라는 경계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을 못사는 중국인 출신의 결혼 이주자로 규정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김미숙 씨가 못 미더워 그녀의 자녀교육에까지 간섭 했다.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할 줄 아는 언어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생활에 유용할 거여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못사는 나라 언어라서 그런지, 이도 막았다. 지금의 중국 위상이라면 시어머니나 남편도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1990년대는 중국이 그저 못사는 나라로 여겨졌고, 아이들이 중국어를 해서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걸 들키는 걸 시댁식구들은 수치로 생각했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한국인 남편보다 실은 교육 수준이 높다. 중국에서 교사가 꿈이었지만 김미숙 씨가 대학을 가던 해에는 키가 155센티미터 이상의 사람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어 자격 미달로 시험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 자란 키를 늘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김미숙 씨는 교사를 포기하고 공업대학에 진학했다.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 잊고 있던 교사의 꿈을 다시 꾸어 보게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김미숙 씨는 한국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로 활동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거 주더라고요. ○○교대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 걸 보니까 아우, 순간 ‘이거 정말 하고 싶다’.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게 강사이던 교사이던 학교에서 일하면 웬지 모르게 “빛”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등록하고 7개월인가 매일 8시간씩 공부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다문화 강사는 2009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라는 이름으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고학력 결혼이주 여성들이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방과 후 외국어 교육 지도 및 다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창출과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미숙

씨는 국가 경계를 넘으면서 잃었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중언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런데 김미숙 씨가 꿈을 찾아 신나게 다닐 때 남편은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 정책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직업이니 들어서지도 말라고 하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니네 미끼야 미끼. 다니지 마”라고 했다. 교육을 받는 7개월 동안은 월급도 없으니, 남편은 “돈 한 푼이 급한데 쓸데없는 곳에 가서 시간을 쓴다.”고 매일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잔소리를 했다.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숙 씨 뜻대로 밀고 나가서, 7개월간의 교육도 마치고 이중언어 다문화강사로 학교를 배정받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주체로 서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몇몇한 국민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에서 설거지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빛이 있는 일”로 생각되고 자랑스러웠다. 이중언어강사로 일하는 고학력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정투쟁에 대하여 연구한 허선미(2006)에 따르면, 고학력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들을 출신국에 따라 서열화하는 타자화의 경험을 겪는다. 김미숙 씨는 본인의 중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그녀가 중국동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편견에 맞설 수 있어 기뻐다.

그런데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한지 2년도 안되어 너무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말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1년씩 계약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루 4시간 계약으로 줄더니 그마저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길게는 4년 6개월에서 짧게는 1년 6개월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강사로 활동한 이들에게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2월 계약단료를 통보하고, 주 15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고 공지 하였다(김유리 2015). 이중언어 강사는 교육부의 한시적 특별교부금으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임시직 강사요원이다(윤석룡 2014: 6). 이들은 교육부에서 부여하는 교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보조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했

다(윤석룡 2014: 6). 하루 8시간 근무였던 것이, 주 15시간미만으로 바뀌면서 수업 준비시간은 임금을 받는 시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2015년 겨울,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다. 김미숙 씨는 “교육청 앞에 텐트도 치고 눈발 날리는 날에 진짜 노숙도 해 가면서 투쟁 같은 투쟁도 해보고” 8일간 단식도 했다. 김미숙 씨를 포함한 다문화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던 것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또 노동 현장에서의 주변부 하위 주체로 한국에서 느꼈던 억압과 차별,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생존투쟁이었다. 투쟁 중 지병이 재발하여 사망한 동료도 있었다(김유리 2015). 소송 및 투쟁 기간이 길어지자 생계를 위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거나 주당 15시간미만으로 재계약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정말 느낀 게 한국에서도 이 모든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정말 이용한다는 거. 필요할 때는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 없이 목 자르더라고요. 정말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그냥.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웬지 앞에 막 희망차게 이야기 해 줬는데,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 없어지니까 서서히 그냥 죽이는 거예요. ... 한국에서 정말 정책을 일관적으로 좀 정말 해줬으면... 특히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좀 악의, 악덕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좀 막 소화가 안 되고,

국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김미숙 씨는 속병이 났다.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이 맞아 떨어졌다”며, 김미숙 씨를 바보 취급하고 이제는 미숙 씨가 무엇을 하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속상했다.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은 외국에서 자란 미숙씨보다 남편이 잘 아니 남편이 하지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25년을 살았는데도, 또 같은 민족인데도 미숙 씨는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미숙 씨는 국가 또는 개인이 자신을 동포, 결혼이주 여성, 중국인, 시급 노동자 등의 호칭 중 무엇으로 늘 타자화시키

고 주변화시키는 다층적인 억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젠더와 출신 국가, 계층이 뒤섞인 교차적 억압체제 속에서도 국가 권력과 가부장적 지배에 늘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활동하며 인정받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한 인정투쟁을 끊임없이 하였다.

그러나 김미숙 씨의 남편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주체로 나선 미숙 씨를 인정하고 그 고통에 귀 기울이기에 함께 연대하여 싸워주기 보다, 이 기회에 미숙 씨를 더 종속시키려 했다. 한국인 남성이 폭력과 음박지름, 무시 등으로 외국 출신 아내를 순응시키려는 모습은 한국 가족 및 국가가 옹호하는 강력한 부권 중심의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김현미 2014: 55). 한국인 남성이 외국 출신 아내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에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다문화정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결혼 이주로 입국한 여성의 정체성을 아내, 어머니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규정하고,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성 역할만을 강조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서는 것을 방해한다. 오히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 역할 규범은 ‘아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정을 지켜낼 것을 강요하며 폭력으로 가정을 떠난 여성에게 가족해체의 책임을 지운다(정희진 2016: 33).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sup>5</sup>을 다문화가정의 위기로 규정하며 가정을 떠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구조적인 틀 내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김희순 2019: 4).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정 내 성별화 된 역할을 감내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아, 조심스럽지만 전략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남편과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여,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까지 하며 생존의 위기에 초국적으로 대응한다(김현미 2014). 이들은 가정을 문화적 접경지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쪽 문화를 중재하고 재배열하며

5 2017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통계를 시작한 1995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이 195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5,206건으로 27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23만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이룬 다문화 가정 중 7만 7천명이 이혼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다(김희순 2019: 2).

한국에서 통할만 한 생존전략을 습득하여 자신의 위치를 협상해 가는 문화번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김현미 2010). 그러나 노력하여도 호혜적인 관계 성립이 불가하고 문화번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다층적인 억압의 장소인 “피흘리는 경계지대”(Anzaldúa 1999)에서 고통 받아 주저앉은 이주 여성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매체 및 연구에서 부부간의 호혜성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결혼이주 여성의 전략과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내 폭력을 당하면서도 대안의 공간을 꿈꿀 수 없어 가정에 갇혀 있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수행성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안잘두라(Anzaldúa)는 그의 책 경계지대(Borderlands)에서 “경계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 없이 살아야 하고 교차로가 되어야”(1999: 217)한다고 썼다. 정현주(2015: 294)는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교차로로서 역할 하는 수행(또는 번역)에만 초점 맞추는 것을 불편해 했다. 즉, 경계지대에서 고통 받는 여성주체가 직면한 억압과 모순의 실체를 충분히 파헤치고, 교차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정현주 2015: 294).

김미숙 씨는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며 한국에서 경계 없이 살고 교차로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미숙 씨를 가정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 시스템, 국가권력은 지속적으로 다시 경계 밖으로 밀어냈다. 경계를 만드는 자의 권력은 경계 밖으로 밀어낸 이들을 타인(others)로 만들며, 그들이 경계지대에서 피 흘리며 수행하는 경계 넘기를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미숙 씨는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좌절된 후, 우여곡절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얼마 전부터 건강 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남편은 그 일이 다단계판매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 한다. 김미숙 씨는 “이 땅에서 멋지게 일을 하며 곳곳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자녀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거둬되는 저항에도 여러 겹의 억압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다층적인 제약 앞에서도 김미숙 씨는 희생자나 불쌍한 여성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주체적 삶을 꿈꾸며 노력한다. 하지만 결혼이주 여성 한 개인이 국가와 사회가 구조화시켜 놓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에 도전하고, 이주여성을

주변화 시키는 노동시스템을 바꾸어내며, 남편의 폭력과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적 삶을 찾기에는 구조적 틀이 견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극히 제한적으로 느껴질 때 서글프다고 한다. 그래도 김미숙 씨는 함께 옆에 서서 서로 지지해 주는 이들이 있기에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김미숙 씨가 다문화강사들과 시위를 할 때, 거리에 같이 나와 서서 동참하고 지지해 준 한국인들 중 한 명이 김미숙 씨를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초대할, 이 프로그램의 공동연구자였다. 김미숙 씨는 그 연대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공감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의 삶에 한발 짝 더 다가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김미숙 씨는 이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만난 두 싱글언니의 삶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했다.

#### 4. 두 싱글 언니의 초국가적 노동과 돌봄: 사할린 출신 이숙자 씨와 탈북자 김금영 씨

##### 1)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우먼의 초국가적 돌봄

두 싱글언니는 북한 출신의 60대 김금영 씨와 사할린 출신의 70대 이숙자 씨였다. 둘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기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야기도 잘 통했고 금방 친해졌다. 1박 2일의 프로그램 내내 같이 다녔고, 방도 같이 썼다. 두 사람 중에 먼저 삶의 이야기를 한 이는 이숙자 씨였다. 이숙자 씨는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60년 넘어 살았으니까.”라고 말문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숙자 씨의 우리말은 의사소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960년 전반까지 장려되었던 민족교육과 민족문화 창달사업은 브레즈네프 정권이 등장한 1964년부터 금지 되었고, 조선학교들도 문을 닫았다(정진아 2014: 41). 1960년대 이후 소련의 동화정책으로 인해 민족어를 배우지 못한 후세대와 다르게, 이숙자 씨는 조선학교에 입학하여 9학년까지 다녀서 우리말을 꽤 잘했다.

이숙자 씨의 부모님은 경상북도 대구 출신이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중인 1939년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끌려갔고, 이숙자 씨의 어머니는 1943년에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 이숙자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1945년 4월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숙자 씨에게 “(한국 갈 여건이 허락되면) 너희들 등지고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한다”며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으로 2000년도에 영주귀국 할 때까지 비국민으로 있었다. 어머니도 아버지 뜻을 따랐다. 이숙자 씨는 사할린이 아니라 소련 “큰 땅”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려면 소련 국민이어야 했지만 부모가 비국민이었기에 신청 자격이 없었다.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 여권을 만들어 줄 때라 북한 국적을 받고 사할린의 사범학교에 들어갔다. 그 후,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소련 국민증을 취득하였다.

이숙자 씨는 1980년, 자신의 나이 35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되었다. 그때 두 아이는 7세와 9세였다. 그 후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사는 것이 팍팍했다고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러시아를 휩쓸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오히려 이숙자 씨에게는 경제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다. 이숙자 씨는 친척의 돈을 빌려 중국으로 보따리 장사<sup>6</sup>를 다녔다. 그러다 한국으로도 왔다.<sup>7</sup> 구소련이 개방되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우리나라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서는 소위 “체르토키”라 불리는 보따리 장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구소련이 개방되는 시점에 상점들의 진열장에는 물건이 없어 돈은 있어도 상품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대외 개방이 이뤄지고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자유롭게 외국을 넘나들며 물건을 해다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정식 수입 유통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고 해외와 러시아 국내 시장 간의 가격차이가 커서 가능했다(안택원 1994).

6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유통업의 혼란으로 보따리장수들은 급증하였다. 1996년, 러시아 총수입의 26%에 해당하는 1백43억달러어치의 상품을 보따리 장수들이 수입했으며 종사인원도 최대 80만명으로 추산되었다(연합뉴스 1998.2.3).

7 사할린 한인이 한국인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사할린동포의 모국방문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1992년부터 사할린 영주귀국사업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방문취업 비자가 허용되면서 사할린 한인을 포함한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이 증가하였다.

이숙자 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서 중국, 한국 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 중동까지 다녔다. 탈냉전이 이숙자 씨에게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숙자 씨는 국가 소유였던 집이 개인 소유로 바뀌자, 싼 집을 하나 사서 수리 한 후 가게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국가까지 가서 고급 물건을 구해 오자, 돈이 생긴 사람들 사이에 이숙자 씨의 가게가 소문이 났다. 특히, 이숙자 씨는 패션 쪽에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목돈이 마련되자 터키나 중동 등으로 다니며 비싼 의류를 갖다 팔았다. 입소문이 나니 비싼 모피들도 잘 팔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숙자 씨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다. 이숙자 씨는 “한편으로는 개혁이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잡으면 그때 잘 살 수 있었다”고 체제전환기를 기억한다. 이 당시에 구소련에서는 국유재산을 싼값에 사들여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된 ‘올리가키(과두제벌)’들이 등장했다(신동아 2008).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이 혼란기를 기회로 삼아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명이 이숙자 씨였던 것이다.

이숙자 씨는 재혼도 했다.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혼을 하는 건 망신이라 생각해서 참고 10년을 살다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가자들은 일제히 웃었다.

다음에 재혼도 했습니다. …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인들이 한번 여자들 시집가면 또 두 번 시집가고 세 번 가면은 망신이고 부모 망신이고, 암만 잘 못 하고 나쁘게 해도 그냥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0년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비즈니스하고 나도 비즈니스 하니가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고 그다음에는 생각하는 게 달라서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이혼) 할라 하니가는 또 사람들에게 망신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못한 거야. 그다음에는 딱 이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하니가 왜 이때까지 10년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싶더라고.

러시아에 있는 조선 사람은 러시아 백인에 비해 이혼과 재혼에 대해 보수적이

라고 한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국가 연금이 나오기에 남편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국가를 믿는다.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은 이혼을 더 쉽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숙자 씨는 딸이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스러워하자, 남의 시선에 매이기보다 딸을 이혼을 시키고, 집을 사서 미용실을 차려 주었다. 이숙자 씨는 러시아에서 사는 동안 자식들이 다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열심히 일해 “밀어줬다”.

이미자: 그러니까 저 보고도 남편이 있는 사람도 저처럼 하기는 힘들다고. 자랑이 아니라.

청중: 자랑하셔도 돼요. (웃음과 박수)

이미자: 자랑 아니라 (웃음). 젊었을 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가 조그만 한게 7살 9살 이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내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자라서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다 나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숙자 씨는 어머니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그간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였다. 러시아에서 자식들 근처에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이숙자 씨는 현재 안산 고향 마을에 사할린 영구 귀국자로 지내고 있다. 이숙자 씨는 6남매의 맏이었다. 부모님이 2000년 1차 1세대 영구귀국자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셨다. 그래서 맏딸인 이숙자 씨가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다행히, 이숙자 씨 1945년 8월 해방 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났기에 영주 귀국 대상이었다. 1945년 8월 16일에 태어나 못 온 친구도 있다고 한다.

이숙자 씨는 2007년도에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아버지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를 병간호 했다. 지금은 70대인 이숙자 씨가 90대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 그늘 아래에서도 못하는 비즈니스를, 아니 남자들이 쉽게 엄두를 못 내는 일을 이숙자 씨는 진취적으로 국경을 넘으며 했

다. 그랬던 이숙자 씨에게 형제들 중 맏딸이라는 이유로 또 챙겨야 하는 남편이 없기에 부모 돌봄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1945년 해방 이전 출생자들이다 보니, 이제는 고령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국경을 넘는 돌봄과 ‘어디 나라에 묻힐 것인가?’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질문은 이숙자 씨 본인에게도 해당 하는 질문이 되었다. 이숙자 씨의 자식과 손주들은 여름마다 안산 고향마을로 이숙자 씨와 그의 노모를 만나러 온다. 이숙자 씨는 노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은 본인이 자식들 옆으로 가야 자식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한다. 이숙자의 고령화에 따른 초국가적 돌봄과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에게는 이제 일상적인 화두가 되었다.

## 2) 언니들의 파자마 파티

저녁식사를 마치고 저자가 숙소로 돌아오니, 옆방에 머무는 이숙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다. 얼굴에 팩을 붙이고 분홍색 예쁜 레이스 잠옷을 입은 이숙자 씨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당신 방으로 건너오라고 했다. 건너가 보니 탈북 여성 김금영 씨는 감기 기운이 있어 이불 여러 채를 덮고도 한기를 느끼며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 했다. 붓물이 터지듯 쉬지 않고 울며 이야기 하는데, 감정이 폭발하여 탈진 상태가 되었다. 김금영 씨는 이숙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숙자 씨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은 외로움과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자신은 안다고 했다.

김금영 씨는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위한 “지대혁명”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했다고 한다. 저자가 지대혁명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 생활터전을 옮겨 가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무엇이든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북한의 경제난에도 대학 총장을 찾아가 아들을 대학에 합격 시켰다. 하지만 이숙자 씨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정치적 토대인 출신성분도 좋지 않아 아들의 출세에 지장이 있자 2008년 남한으로 탈출을 하였다. 한국에서 북

한 이탈주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똑똑한 큰 아들의 미래가 한국에서도 그려지지 않자 한국 도착 3년 만인 2011년에 다시 캐나다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였다. 김금영 씨네 가족이 가기 직전까지는 캐나다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국 경유의 여부는 묻지 않았지만, 김금영 씨네 가족이 난민신청을 했던 당시부터는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이 거부 되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캐나다에 간지 2년 만에, 큰 아들은 3년 만에, 본인은 6년 만에 캐나다에서 돌아왔다. 모두 캐나다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살았는데, 그 보다는 '신분'이 있는 한국으로 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 김금영 씨가 캐나다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어차피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캐나다의 시급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미등록 노동자로 일했지만, 자식들은 당당하게 살게 하고 싶어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했다. 김금영 씨는 캐나다에서 한 달에 이틀만 쉬는 날을 가지고 한식당 주방에서 하루 15시간 씩 일을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대학원을 다니는 큰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다.

김금영 씨의 이야기를 들던 이숙자 씨는 고단해도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었다. 김금영 씨가 혼자 늙는 것보다는 의지할 남자가 있는 게 낫지 않나면서 주위 사람들이 결혼을 권유한다고 하자, 단호하게 아이들을 아직 뒷바라지해서 세우려면 남편 만나 남편 치다꺼리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김금영: 한국에 와서 지인들이 소개해 시집갈까 해서 한국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 무식합니다. 이야기가 안 통해요. 한국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나서서 소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나봅니다. 멋이 없어요. 이제 60인데 아직도 한국에 온 큰 아이가 자리를 잡지 못해 내가 일해 도와줘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 잘 해요. 내가 아직 건강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기 펴고 살게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숙자: 나한테도 아직 연애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남자 만나 밥해주고 수발들게 생겼나? 다 싫다. 그러다 나도 이제 곧 80인데 내 몸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남편 월체어 끌고 있어야겠나? 남편 없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일을 한다. 그래야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장성한 자식도 부모 도움이 필요할 때 밀어줄 수 있다.

모두들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돈을 벌 어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자식들이 20대인 재중동포 김미숙 씨부터, 40대인 탈북여성 김금영 씨까지 이들의 노동과 일상은 자식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립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기는 녹록치 않다. 제일 젊은 김미숙 씨조차 이제 50이 되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김미숙 씨는 젊었을 때 다문화강사를 한다고 버린 시간이 가장 속이 쓰리고 아프다. 김미숙 씨가 우연찮은 기회에 시작하게 된 일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다. 남편은 이 일이 다단계 판매라고 싫어한다. 이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집안 망신이라며 험악하게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며,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회사에서 원하는 운동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져서 이 식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권하고 싶다고 했다. 김미숙 씨가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자식들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부모님은 김미숙 씨가 안아야 할 부담이 되었다. 김미숙 씨는 본인이 형편이 어려워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형편이 못되자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본인들 힘으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 하지만 연노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날들이 늘자,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부모님 병원비까지 쓰기에는 너무 빠듯하고 눈치가 보여 돈을 벌고 싶었다. 부모님 모시고 병원도 가야 하다 보니, 식당 보조나 아이 돌봄 같이 매이는 일은 어렵고, 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한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

70대 사할린 할머니인 이숙자 씨가 하는 일은 000라는 제품의 화장품 방문 판매다. 오늘 우리 얼굴에 붙여 준 마스크 팩도 그 회사 제품이다. 이 또한 다단계

판매이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 여성이나 귀환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장밋빛 꿈을 꾸게 하는 곳들 중에 다단계 회사가 많다. 돈을 벌고 싶은 절실함은 있으나 다른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이주자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권에서 온 이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막대한 이득을 본다는 설명에 의문을 품지 않고 다단계 아웃소싱 구조에 쉽게 편입되기도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한 사할린 이주연구자 임성숙은 사할린 영구 귀국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가면, 다단계 회사 제품을 파는 이들이 수시로 아파트 단지를 드나든다고 한다. 이들은 외로워하는 노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절하게 대하며 건강식품이나 다단계 회사 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사할린 고향마을 입구와 안내판에는 아파트로 찾아 온 낯선 이에게 물건을 사지 말라는 안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주민들 중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법과 제도가 낯설어, 적극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 날 세 명의 여성참가자와 필자는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구술이 시작되고 김금영 씨는 마지막 순서였다. 김금영 씨 차례가 되기 직전 김금영 씨는 전날 파자마 파티에서 너무 많은 말을 쉬지 않고 해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인지, 전날 시작된 울음이 다시 폭발쳐 올라왔다. 보통의 탈북자들은 경제난과 북한 탈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녀의 생애사 구술동안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김금영 씨는 트랙터 운전수로 일을 하며 혼자 트랙터까지 고치던 일과 결혼 후 남편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하여 이야기 하다 울기를 반복했다.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질문하기보다 생애구술사라는 포맷으로 열려있는 시간을 주자,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들었던 다른 이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자신이 삶에서 가장 자신이 주체로 빛났던 순간과 가장 아팠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 5. 나가며

이 연구에 참가한 한인은 1990년대 탈냉전의 시기를, 삶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이주를 감행하며 경험하였다. 재중동포 김미숙 씨가 한-중 수교 후 초창기 결혼이주 여성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인 이상면 씨는 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공장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하였다. 이상면 씨가 자본이 있는 남성으로 공식적인 사업을 했던 반면, 비슷한 또래인 사할린 한인 이숙자씨는 소련의 개혁개방 시기, 보따리 장사로 국경을 넘으며 부를 축적했다. 재일동포 이한수 씨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찾아온 때도 이 시기였으며, 한국 출신 김상호 씨가 무너진 소련이 믿기지 않아 러시아로 가서 고려인 동포 돕기를 시작했던 때도 같은 시기이다. 구술 참여자들은 협력적 생애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각기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으며, 성별도 다르고, 4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도 다양한 이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키며 소통하고 이해하려 했다. 또한 이들은 구술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 내어 이야기라는 형태로 재현했고, 자신의 삶의 제약이 되었던 조건들을 확인하고 개인을 뛰어넘는 구조적 차원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연대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협력적구술 과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은 초국가적 한인의 이주와 삶을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자 실천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14차,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명 중 2명의 남성, 이상면 씨와 김상호 씨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한국 출신인 두 남성은 가족의 이야기 보다 두 사람이 받은 교육과 직업, 사회 활동에 더 집중하여 구술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남성 생애사 구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주와 가족에 집중하여 이야기 한 다른 네 명의 삶의 이야기를 본 논문은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한수 씨의 구술은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로, 또 재일 동포로 살면서 겪은 차별과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인 이한수 씨와 결혼이주 여성인 김미숙 씨는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을 보이며 서로의 경험을 비교하며 구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구술사처럼 연구자와 구술자 둘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도 발화되며 공감되고 위로되기도 함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이주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또한 연대의 파트너로 끌어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1박 2일의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추가질문도 하고 안부도 묻기 위해 종종 전화를 하곤 했다. 그런데 재중동포 김미숙 씨, 사할린 출신 이미지 씨와 탈북자 출신 김금영 씨는 카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종종 이야기를 나누기에 서로의 안부를 알고 있었다.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속속들이 했는데, 다시 연락하고 지내기에 썩스럽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서로 일상의 영역에서는 인간관계가 께질 수 없는 다른 나라 출신의 동포들이기에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또, 인생에서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주어지는 때가 또 있을까 싶다고 했다. 세대가 다르지만 사회주의권 출신의 이주민인 이 세 여성은 남편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여전히 같이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삶이야기 프로그램 중 이 논문에서 쓴 14차는 특별히, 참가자들 간에 공감과 이해가 깊이 이루어진 회 차였다. 언어적 장벽과 사회, 문화적 차이로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가자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참가자들 간에는 침묵했지만 편견이 강화되는 걸 확인했던 경험도 있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이 공감과 연대를 마법처럼 불러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참가자들이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방법을 디자인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실천일 수 있다. 또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선행된 상태로 연구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연구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것은 연구자가 구술자와 연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

교신: 최은영(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christinaeunyoungchoi@gmail.com)

Correspondence: Choi, Eunyoung Christina(Research Associate,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christinaeunyoungchoi@gmail.com)

2020.01.31 접수, 2020.02.04 심사, 2020.02.17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96-136.
- 김귀옥, 2013, 냉전적 이산과 탈냉전적 공존의 전망: 교토 재일 코리안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9, 121-157.
-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3), 145-174.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들베개.
- 김희순, 2019, 생애사를 통해 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나혜심, 2012,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산과 글.
- 매일노동뉴스, 2015.12.29, 다문화언어강사, 그들의 해고투쟁에 관해.
- 문현아·Park, Christian Joon, 2016,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7(1), 137-186.
- 박경용, 2014, 한 조선족 여성의 가족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경험과 생활사: 1932년생 박순옥의 삶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3), 1-36.
- 신기영, 2016,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14, 22-49.
- 신동아, 2008.01.25, 점입가경, 러시아-서구 끝 모를 갈등.
- 신현준, 2013,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그린비.
- 안태운, 2015,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2, 235-274.
- 안택원, 1994, 서울의 밤을 밝히는 러시아 보따리 장사들 - 한, 러 관계의 명과 암, 한국논단, 54, 172-177.
- 양영자, 2013,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 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271-298.
- 연합뉴스, 1998.2.3, 러시아 보따리장수 한국행 러쉬.
- 윤석룡, 2014,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제도 개선방안: 다문화언어강사 직무스트레스 및 관계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택림, 2002, 질적 연구방법과 젠더 -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2), 201-229.

- 윤택립, 2010, 여성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여성 구술생애사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적 논의, 27(2), 77-111.
- 윤택립, 2013, 분단과 여성의 다중적, 근대적 정체성: 1930년대 초 출생한 두 실학민 여성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1), 127-162.
- 이나영, 2012,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 한국여성학, 28(3), 181-217.
- 이상록, 2015, '디아스포라(Diaspora)'를 '민족국가'로 회수하지 않기: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할린 한인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6(2), 11-48.
- 이성숙, 2006, 서구 여성구술사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사학회, 5, 1-24.
- 이효선·김혜진, 2014, 생애사 연구를 통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삶의 재구성 -과독 간호사 단 일 사례연구, 한국여성학, 30(1), 253-288.
- 이희영, 2007,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98-133.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45.
- 이향규, 2019a, 영국청년 마이클의 한국 전쟁, 창비.
- 이향규, 2019b, 고향은 부칸입니다, 창작과 비평.
- 정진아, 2014, 국내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인문학, 58, 35-65.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제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289-303.
- 정희진, 2016,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교양인.
- 조일동, 2015, 영구 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황신용, 2005,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선미, 2017, 고향력 결혼이주여성의 탈구위치와 인정투쟁-이중언어강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현무암, 2006, 동아시아와 코리안 디아스포라-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창작과 비평, 34(1), 258-273.
- Anzaldúa, Gloria, 1999,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 Park, C. J.,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

## **Building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through Collaborative Oral Life-histories: Focusing on Transnational Koreans' Gender and Family**

Choi, Eunyong Christina\*

**Abstract** Research on the Korean diaspora still has a tendency to retain the myth of a singular homogeneous Korean ethnic group and places the Korean peninsula at the center of Korean migration and culture. Given that, this research starts with this question: is it possible to do research on the Korean diaspora beyond the perspective of a South Korean researcher's own positionality?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Life Histories of Border Crossings' program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Utilizing the "collaborative life histories" research method, this program aims to understand the Korean diaspora networks formed among transnational Koreans an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them. By focusing on gender and family, I examine how participants at the program connect to each other across gender, generation and native countries while reflexively locating themselves through telling their own life histories and listening to each others' lives.

**Keywords** Diaspora, Gender, Migration, Collaborative Oral Life-histories, Transnational Koreans, Family

---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Research Associate, christinaeunyongchoi@gmail.com